

# 웨슬리 윈트워스 북펀딩 첫 번째 서적,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사진 이대응

‘웨슬리 윈트워스 북펀드’ 첫 번째 책,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아바서원의 문래동 사무실을 찾았다. 오랜 시간 함께 인연을 이어온 웨슬리 선교사와 아바서원 대표이자 이번 책을 번역한 홍병룡 간사가 함께했다.



### —— 웨슬리, 기독교학문연구의 비밀주머니 ——

**웨슬리(이하 W)** 저는 대학시절, IVF를 통해 복음주의 정통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1953년 당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믿지는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된 후 저는 복음주의 진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양질의 서적이 있는지, 특히 학문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적인 수준이 있는 복음주의 서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으로 학문을 하고 그런 학문을 진전시킬 수 있는가’였지요.

IVF에 몸담고 있을 때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해외로 나갈 기회를 찾다가 대학원 졸업 후 취직한 회사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한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아치 캠벨의 Christ of Korean Heart를 통해 한국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청계천 하수처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제 전공이 토목공학 중에 상·하수처리입니다-나중에는 광주 기독교병원의 부속건물을 짓는 일의 총책임을 맡았습니다. 대학시절부터 책에 관심이 많았고, 각 분야의 좋은 책들을 선별해 목록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기에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관심 분야를 묻고 그 분야의 좋은 책을 소개하곤 했습니다. 해외에서 주문해 팔기도 했고요.

**홍병룡(이하 홍)** 웨슬리 선교사님은 사람들이 기독교적으로 학문을 하도록 격려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 오셨습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모체가 되는 두

단체도 웨슬리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아 창설되었습니다. 하나는 1980년대 초반에 대학원생들이 시작한 ‘기독교학문연구회’입니다. ‘기독교 학문’을 위해 만들어진 첫 그룹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그때 참여했지요. 또 비슷한 시기에 한국과학기술원에 다니던 양승훈 교수를 중심으로 ‘기독교대학 설립동역회’가 생겼습니다. 이 두 단체의 배경에는 모두 웨슬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웨슬리 선교사님은 “당신의 전공과목을 신앙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국의 크리스천 대학생과 교수들에게 던졌고, 이 질문은 젊은 지성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학문의 중요성에 대한 각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학문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공급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개념이 한국에 도입된 것도 그 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 —— 세계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



**W** 기독교 세계관과 학문을 추구하는 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제가 한국에 왔을 때보다는 ‘기독교 학문’이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시각에 대한 인식 자체가 드물던 때를 비교하자면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욱 성장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독교학교를 표방하는 학교도 막상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채플이나 종교 수업 외에는 기독교적 요소가 거의 없는 것을 봅니다. 교과와 내용은 세속 교육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교육이 아닙니다. 교과 과정과 가르치는 교사에게 기독교 세계관이 스며있어야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되는





기독교학문연구나  
세계관 운동이  
몇 십 년 이어져 왔지만  
아직 기대만큼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것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마크 놀은 그의 책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에서, “지성의 영역에서는 복음주의적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며 그런 지성의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30년 동안 복음주의 지성을 일으키려는 노력은 계속되었고 실제로 얼마간의 효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발전해야 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지성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지요.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 중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나 기업의 구성원으로 있는 사람에게 “왜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이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적 시각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결국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신앙과 삶의 이분법을 막으려면, 기독교적 관점으로 모든 분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가 말하는 것



**W** 이 책은 바로 이런 흐름 위에서 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특히 학문 분야를 깊이 다룬 책입니다. 신칼빈주의를 이끈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도예베르트의 사상은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 책의 저자인 로이 클라우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책은 그가 뉴저지 대학에서 철학교수로 재직하면서 몇 십 년 동안 가르치고 연구한 것을 집대성한 것으로, 그는 크리스천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기독교적으로 학문을 한다는 것의 의미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는 과학이나 학문 이론은 이성에 바탕을 두고 발전하기에 중립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학문 이론을 깊이 들여다보면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모든 학문 이론에는 증명되지 않은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의 기저에는 일중

학문 이론을 깊이 들여다보면  
절대 중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학문 이론에는  
증명되지 않은 전제가 있는데,  
그 속에는 일종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신이든 아니든 말입니다.



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신이든 아니든 그들이 비의존적인 존재로 믿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가 물질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기서는 ‘물질’이 ‘신’의 위치에 서 있는 셈입니다. 저자는 특별히 물리학, 수학, 심리학 분야의 가장 유명한 이론들을 예로 들면서 각 이론들이 어떤 종교적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지 밝혀냅니다. 이런 이론들이 하나같이 환원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 비판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환원주의 이론을 정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회론과 국가론을 중심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립성이라는 게 신화(허상)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의 법칙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식에 대한 묘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천조차 법칙을 마치 자존하는 것처럼 믿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틀을 여러 분야에 적용하는 일이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주제를 오랜 시간 연구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지금 이 시대에 갖는 의미



**W** 아직도 학문 이론의 중립성을 믿고 주



**홍** 기독교학문연구나 세계관 운동이 몇 십년 이어져 왔지만 아직 기대만큼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모임이나 컨퍼런스는 많지만 이런 저런 주제를 깊이 다룬 연구서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의 주장을 100%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리스천 학자로서 평생 연구하고 가르친 것을 정리해서 세상에 내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책은 일차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학문한다는 것에 대해 알고자 하는 크리스천 교수나 학생들에게 좋은 교재가 될 것입니다. 이차적으로는 비기독교/반기독교 학자들에게 그들과 다른 관점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반론을 제기할 여지는 있지만 말입니다.

### 웨슬리 북편딩



**W** 문서 사역을 해 오면서 아쉬웠던 점은, 이런 무게 있는 책을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교수에게 “기독교 신앙과 당신의 전공과목을 연결시키는 책 5권을 골라서 학생들에게 추천해 보라”고 얘기하면 5권을 열거할 수 있는 교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공 분야에 속한 양질의 기독교 도서를 소개하는 것은 교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좋은 글을 선별하여 책으로 엮어 내는 출판사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출판계는 그러한 사명 이전에 생존이 더 큰 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좋은 책에 대한 필요는 많은데, 그 일을 위해서는 우선 출판사가 살아남아야겠지요. 솔직히 교회 빌딩을 짓는 것보다 문서사역에 투자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 그런 점에서 웨슬리 선교사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 책은 선교사님의 후원에 힘입어 출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책이라도 무거운 주제를 다룬 책은 출간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잘 아시고 선교사님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독교 학문 분야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애써 오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평생에 걸친 헌신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선교사님의 좋은 뜻이 이 책을 통해 크리스천 지성인들에게 잘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한국의 크리스천 학자들이 쓴 깊이 있는 연구서를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WESLEY BOOK FUND

웨슬리 북펀드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서적이지만 출간되기 어려운 출판 시장에서 꼭 필요한 서적을 출간합니다. 그 첫 번째 도서는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로 세계관동역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북펀드를 진행합니다.

\* **대상서적** :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원서명 : The Myth of Religious Neutrality, 저자 : Roy A. Clouser)

### \* 북펀드에 참여하는 회원이 받는 리워드

- A형(3만원) 참여시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1권
- B형(6만원) 참여시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2권과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1권

\* **북펀드 목표(100구좌) 달성 시 1구좌당 5천원을 웨슬리 북펀딩 2탄 제작비로 적립됩니다.**

\* 문의 02-754-8004



웨슬리 웨스트워스 북펀드 캠페인은 기독교학문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웨슬리 웨스트워스 선교사님의 뜻이 확산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웨슬리 선교사님의 추천과 후원에 힘입은 도서를 출간합니다. 그 첫번째 서적으로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의 북펀딩을 시작합니다. 세계관동역회의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 WESLEY BOOKFUND NO.1

# 〈웨슬리 웨스트워스 북펀드 #1〉

첫번째 도서,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북펀딩을 시작합니다!

### 강영안 교수 강력 추천!

종교와 무관하다고 여겨진 이론들의 숨겨진 전제를 파헤치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철학의 이론들이 종교적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 같은 종교적 중립성을 하나의 신화로 규정하고 모든 이론의 바탕에는 모종의 종교적 믿음이 있음을 치밀하게 논증한다.”

##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학문이론과 종교적 믿음의 상관관계

로이 클라우저 지음 | 홍병룡 옮김 | 520쪽 | 35,000원 | 아바서원



### ∴ 웨슬리 북펀드에 참여하는 월드뷰 회원이 받는 리워드 ∴

- (1) A형 (3만원)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1권 (정가 35,000원)
  - (2) B형 (6만원) [종교적 중립성의 신화] 2권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미니)] 1권
- + 목표(100구좌) 달성 시 1구좌당 5천원을 <웨슬리 북펀드 #2> 제작비로 적립합니다.

### ∴ 참여방법 ∴

북펀딩 참여 의사를 메일로 전해 주시고, 입금해 주시면 출간 후 책을 보내드립니다.  
\*메일발송시 메일제목에 “웨슬리북펀드” 기재, 연락처(손전화), 주소를 꼭 적어 주세요.  
\*입금시 꼭 “입금자명(웨북)” 으로 입금해주세요.

이메일 info@worldview.or.kr (세계관동역회) | abbabooks@hanmail.net (아바서원)  
문의 02-754-8004 (세계관동역회) | 02-388-7944 (아바서원)  
계좌 신한 100-030-510094 (예금주:협동조합아바서원)

웨슬리 북펀딩 캠페인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 책만드는 협동조합 아바서원과 함께 합니다.